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9, No.2 (February 2009) pp.128-142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국내 확산과 모방현상

-미국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김 찬 주* · 노 미 경**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겸임교수**

Diffusion and Imitation of American Trendy Casual Style in Korea

- Focusing on the Styles of American Celebrities-

Chanju Kim* · Mikyung Ro**
Professor,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투고일: 2008. 12. 3, 심사(수정)일: 2009. 1. 22, 게재확정일: 2009. 2. 1)

ABSTRACT

American trendy casual style can be characterized as fitted to body and rendering sexy and fashionable images and now very popular in Korea. This paper aims to identify how American trendy casual styles have been introduced and diffused among Korean young people and also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styles. American trendy casual style was introduced and diffused through 4 channels: people who have living experiences in America, media exposure by American films, TV dramas and fashion magazines, on-line network using internet cafe, club and blog, use of on-line shopping mall speciallized for purchasing American apparel brands. Some of American celebrities became fashion ikons and played critical roles in diffusing American trendy styles. Photos of those American celebrities and street fashion of Korean young women were collected through internet search from Sep. 2006 to Aug.2007. 6 styles including leggings, mini skirt, short dress, skini jeans, pants with long boots, big bag and long necklace were selected as representing American trendy casual styles. Silhouettes and overall styling were very similar in all 6 items. But Differences were found in terms of color, amount of details, item coordination, matching shoes and overall images.

Key words: American trendy casual style(미국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 diffusion(확산), imitation(모방), elebrities(유명인사들), street fashion(스트리트 패션)

*본 논문은 2006년도 인천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 과제임.
Corresponding author: Chanju Kim, e-mail: cjkim@incheon.ac.kr

Ⅰ. 서론

현대인들이 자신의 일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여행, 쇼핑, 문화 행사 참여와 같은 여가 활동을 중시하게 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복에 있어서도 착용이 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캐주얼 의류 쪽으로 착장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캐주얼 마켓은 중저가 전략의 이지 캐주얼(easy casual)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캐주얼 브랜드들의 스타일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여 스타일의 개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고, 남녀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성구분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개성을 추구하며 성장해온 지금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 세대들은 캐주얼 차림에서도 남들과 차별화하고 자신들의 개성과 신체적 매력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스타일이 거의 유사한 기존의 국내 캐주얼 스타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을 찾게 되었다. 이때 캐주얼웨어가 갖는 편안함과 실용성에 섹시함과 패셔너블함을 동시에 갖춘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American Trendy Casual)은 바로 이들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대안적 스타일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은 합리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미국 문화의 정신을 반영하여 활동적이고 편안함을 우선으로 하는 기본에 충실한 스포츠웨어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패션에서 개성표현과 섹시함이 중요시되는 경향에 맞추어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에서도 개성적인 스타일과 신체의 선을 드러내어 섹시한 느낌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스타일 경향이 점차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할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한 미국 연예인들이 평상복으로 자신의 신체적 매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들을 많이 착용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매체에 자주 노출됨에 따라 연예인과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프로그램과 거리패션을 보면 젊은층에서 신체 노출이 많은 섹시하고 발랄한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들을 착용한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특성과 이들이 국내에 소개되는 경로와 확산과정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대표적 착용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예인들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국내 패션거리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스타일들에 대한 모방사례들을 조사하여 각 스타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패션스타일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고 확산되어 가는 경로의 모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수집은 관련 문헌은 물론 잡지, 인터넷, 케이블 TV 등 다양한 미디어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의 스타일 특성 및 국내 확산경로를 파악하고 미국 연예인들의 패션스타일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들과 2004년 이후 국내에서 방영하거나 출간되고 있는 미국 드라마, 영화, 패션잡지, On Style'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싸이월드와 국내 대표적 포탈사이트인 '다음', '네이버'에 등장한 미국 연예인 관련 카페와 블로그들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외상품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미국 연예인들의 국내 모방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삼성패션연구소, 서울 패션디자인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리트 패션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외 스트리트 패션을 소개하는 패션사이트 검색도 병행하였다. 미국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각종 미디어 자료 수집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이며, 국내 스트리트 패션 조사 시기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미국 연예인들의 스타일 분석은 주로 일상적 차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크게 의류와 액세서리의 2 부분으로 나누어 빈도가 높은 스타일들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선정된 미국 연예인들의 스타일들과 국내 스트리트 패션 자료들을 비교할 때는 전체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였으며 각 스타일 유형마다 실루엣, 색상, 형태 등 디자인 요소의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림 1〉
아메리칸 클래식
캐주얼

〈그림 2〉
아메리칸 클래식
캐주얼

〈그림 3〉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그림 4〉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Ⅱ.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의 개념과 특징

아메리칸 캐주얼을 크게 클래식과 트렌디의 2가지 스타일로 나누어 각 스타일들의 특징을 2006년-2007년 S/S, F/W 캐주얼 브랜드들에서 제공한 스타일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아메리칸 클래식 캐주얼

아메리칸 클래식 캐주얼은 개척정신과 실용주의, 자유, 평등사상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사회적 특성과 문화 속에서 탄생 혹은 수용되어 개방적, 합리적, 진취적인 미국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인들에게 사랑받아온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의복스타일이다. 특히 농구, 야구, 스케이트 보드 등 스포츠의 유행과 함께 활동성과 기능성이 강조되는 스포츠웨어의 특징이 포함되고 있다. 클래식 캐주얼 웨어가 전달하는 이미지는 '편안한, 꾸밈이 없고 자연적인'라는 3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1)]

아메리칸 클래식 캐주얼 스타일의 특성은 미국의 대학생을 연상시키는 편안하고 실용성을 겸비한 스마트해 보이는 스타일이다. 형태는 직선적이고 단순한 H-line의 박스형과 불필요한 여유분을 없앤 슬림형의 두 가지로 요약되며 인체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형태가 단순하므로 소재와 색채가 갖는 비중이 크다. 색채는 비교적 트렌드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된 칼라 군을 형성하며 시즌에 따라 기본 칼라 내에서 미묘한 색상과 톤의 변화를 이용하여 새로움을 주며 다양한 조합을 시도 한다[2)]. 그리고 문양에 있어서는 스트라이프 패턴과 로고, 엠블렘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아이템은 재킷, 점퍼, 셔츠, 티셔츠, 스웨터, 스커트, 팬츠, 원피스 드레스로 구성된다. 각 아이템은 장식이 단순하고, 구성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면이 복잡하지 않다. 트렌디 캐주얼과 달리 시즌이나 년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스타일이 일관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행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다〈그림 1〉[3)] 〈그림 2〉[4)]. 남녀 아이템의 차이는 크지 않고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 룩이 많다.[5)]

시즌별로 보면 S/S의 경우, 상의는 몸에 달라붙지 않는 라운드 넥 티셔츠나 폴로셔츠, 셔츠, 카디건, 점퍼 류를 착용하고, 하의는 기본 형태의 면바지나 일자형 스커트가 주를 이룬다. 색상은 상의엔 흰색, 파랑, 빨강 등 선명하고 밝은 색상들을 사용하고 하의의 경우에는 베이지, 카멜(camel)색상이 주로 이용되며 프린트가 크고 복잡하지 않아 비교적 전체적으로 단순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F/W에는 S/S의 아이템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색상과 소재가 달라진다. 상의는 기본 티셔츠나 셔츠위에 면이나 모로 만든 재킷이나 점퍼, 또는 스웨터를 입고, 하의는 일자형 바지나 청바지를 주로 입으며 네이비, 갈색, 검

은 색 등 어두운 색상과 좀 더 두꺼운 소재를 사용한다.

신발은 깨끗한 단화나 기본적인 디자인의 운동화를 신는다. 액세서리는 가방에서 옥스퍼드 소재나 가죽소재의 비교적 큰 사이즈의 백 팩이나 메신저 백을 매고, 야구 모자를 주로 쓴다. 액세서리는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 보다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옷과 조화되는 벨트, 목걸이, 시계 등 기본 아이템들을 주로 조화시킨다. 클래식 캐주얼 스타일의 대표 브랜드는 POLO, Ralph Lauren, Calvin Klein, Tommy Hilfiger, Levis등이 있다.

2.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

트렌디 캐주얼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성적 개방이 심화된 1990년대 이후 개인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섹시함'이 패션의 키워드로 부각되었고, 이 섹시함을 표현하기 위해 몸에 잘 맞고 때로는 몸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스타일들이 캐주얼에도 등장한데서 비롯되었다. 캐주얼하면서도 섹시함을 동시에 표현한다는 것은 특히 헐리웃 스타들과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에게 크게 환영받았다. 이들은 매 시즌 패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리드해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캐주얼스타일을 트렌디 캐주얼이라 할 수 있다.

트렌디 캐주얼의 특성은 캐주얼하면서도 섹시함과 개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데 있다. 즉 의복에서 편안하고 실용성도 추구하지만 신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적 매력이나 개성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셔너블함을 가미하기 때문에 특히 10대와 20대 여성들이 선호한다. 남녀에 따라 실루엣과 형태 등 스타일의 차이를 보이며 소재나 색상, 형태 면에서 시즌별, 연도별로 변화가 있다. 아이템 구성은 클래식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형태와 실루엣, 맞음새, 소재, 색채 면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주로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형태는 클래식 캐주얼에 비해 작고 길이가 짧으며, 몸에 잘 맞는 피티드(fitted) 실루엣이 주를 이루며, 때로 대비효과를 위해 헐렁한 스웨터나 팬츠가 유행하기도 한다. 소재는 자연 탄력성이 있는 스트레치 소재가 많고, 색채는 유행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톤이 사용된다<그림 3>[6].

시즌별로 보면 S/S의 경우 여성들의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짧아지고 가벼운 경향을 보인다. 티셔츠는 몸에 잘 맞고 허리가 드러나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며 영문, 숫자로고를 크게 사용하거나, 캐릭터를 프린트한 디자인이 많다. 하의는 아주 짧은 마이크로 미니스커트와 숏 팬츠(short pants)가 주를 이루며, 실루엣은 몸에 잘 맞는 스트레이트나 A자 실루엣, 스키니(skinny) 팬츠 등이 기본라인을 이룬다. 짧은 A자 스커트에 플레어나 개더를 넣은 스타일도 많은데 이러한 스타일은 젊은 소녀들의 귀여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그림 4>[7]. 길이가 짧은 미니드레스도 자주 착용된다. 남자들의 스타일은 헐렁한 티셔츠와 바지가 주를 이루며 여기에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데님재킷이나 후드달린 점퍼들을 함께 입었다

소재는 주로 면을 이용하며 그 중에서도 데님, 신축성 있는 니트 조직들이 많이 사용된다. 색상은 상의의 경우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로고나 캐릭터에 포인트를 준다. 하의는 워싱 처리된 데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바랜 듯한 색상의 다소 가라앉은 톤을 사용하나 때로 흰색이나 베이지 색상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는 원색이나 어두운 색상 등 색감이 강한 상의로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스타일링을 한다.

F/W에서도 여전히 몸에 잘 맞고 길이가 짧은 스타일이 강세를 보인다. 상의는 몸에 붙는 후드가 달린 티셔츠나 트레이닝 재킷, 소재나 디자인의 변화를 준 캐주얼 재킷과 청재킷을 착용하고, 하의로는 S/S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미니스커트, 남자는 헐렁한 바지를 입는다. 남녀 모두 바지의 경우에는 밑위길이가 짧고 몸에 잘 맞는 로우-라이즈 진(row-rise jeans)을 주로 입으며, 스키니 진이나 레깅스(leggings)를 신어 다리의 실루엣을 드러내기도 한다. 때로는 밀리터리(military) 스타일의 영향으로 주머니가 많고 실루엣이 풍성한 카고(cargo)스타일의 바지를 착용하기도 한다.

액세서리는 짧은 하의에 다양한 디자인의 벨트를 착용하여 포인트를 주고자 했으며, 얼굴을 많이 가리

는 복고풍의 큰 선글라스를 많이 쓴다. 또 여름에는 샌들, 겨울에는 굽이 없는 단화나 운동화를 신어 실용적인 차림새를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Abercrombie & Fitch, American Eagle, Forever 21, Urban Outfitters, Holister 등이 있다.

Ⅲ. 패션의 커뮤니케이션

한 사회 내에서 혁신이나 정보의 확산은 사회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이루어진다. 패션은 매시즌 새로운 스타일이 한 사회 내에 소개되는데, 새로운 스타일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패션의 확산과정은 패션정보의 확산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패션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proles는 패션정보의 확산은 비인적과 인적의 2가지 정보원 유형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았다. 비 인적 정보원은 유행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자극하며 신문, 잡지의 기사, 패션잡지 및 신문의 패션광고, 영화 또는 TV 드라마나 쇼, 판촉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인적 정보원은 유행이 시작된 스타일의 적법화 과정에서 유용하며 결과적으로 혁신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언어적 토의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관찰하는 시각적 관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였다.[8] 패션의 소개와 확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행선도자들에 있어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유행선도자들은 유행추종자들에 비해 남, 녀 모두 신문, 잡지, TV, 영화 등 매스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9]

매스미디어를 통한 패션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스타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구성원들끼리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도록 기여한다. 현대인들은 매일 접촉하게 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 주로 결정된다. 이상적인 외모가 사회적인 행복이나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결합되어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며 이러한 가치관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신체 이미지, 자아개념, 외모관리행동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체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TV가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었으며 이들은 TV를 보고난 후 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며, 여학생들이 매스 미디어에 의한 외모의 사회, 문화적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11] 대중매체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의 내면화가 자신의 신체 이미지 지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미디어를 통한 사회, 문화적 압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이렇게 청소년들의 이상적인 신체 외모는 주로 매스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들의 중요한 동일시 대상은 연예인들로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의 외모나 의복을 멋있다고 생각했으며, 이 중 약 30%는 연예인의 외모나 의복에 대하여 직접적인 모방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Ⅳ.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국내 확산경로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미국문화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련 논문, 잡지 등의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종합한 결과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국내 유입과 확산 경로는 유학과 연수기회를 통한 직접경험, 영화와 드라마, 잡지 등의 대중매체 이용,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같은 네트워크 이용, 구매대행서비스를 통한 쇼핑 경험을 포함하여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1. 직접 경험

미국 문화에 대한 직접 경험은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여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최근 조기유학과 어학연수가 급증하면서 어린나이에서부터 해외에서의 거주 경험이 많아졌다. 이들은 정체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감 없이 미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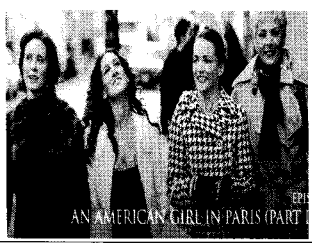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습득한 문화나 스타일링을 국내에 소개하고 전파하고 있다.[14] 또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품과 브랜드를 인지한 후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그 브랜드를 찾고,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재 구매를 하기도 한다.

2. 대중매체 노출

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경우에는 TV, 영화, 인터넷,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미국문화와 패션스타일을 알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케이블TV에서는 수편의 미국 드라마가 방영되었거나 방영중이며, 국내 젊은 여성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높다. 대표적인 드라마가 '섹스&시티'[15]와 '프렌즈'[16]이다. '프렌즈'는 새 시즌이 방영될 때마다 동일 공중파 방송을 포함해 시청률 4위에 오를 만큼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 '섹스&시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만5천명이 '섹스&시티'의 동호회에 가입했을 정도로 젊은 층에서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미드'라는 약칭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다.[17] 이 드라마에 의해 탄생한 주요 패션 아이템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상품들은'펜디(Fendi)의 바게트 백', '마놀로 블라닉(Manolo Blahnik)의 하이힐' 등이 있으며, 이 상품들 중 주인공 캐리(Carrie)의 목걸이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과 '프리챌(www.freechal.com)''캐리숍(carrieshop)'의 인기 품목이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마놀로 블라닉'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 구두 브랜드인 '지미 추(Jimmy Choo)'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였다.[18] 이런 인기는 이들 드라마가 세계 최고의 트렌디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누리는 문화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즉 미국 도시 문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보편성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국내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10, 20대들을 위한 트렌디 영화들이 국내에서 많이 개봉하고 있는 것도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인지도를 높였다. 이들 중 2004년 1월 이후 "내 생애 최고의 데이트(Win a date with Tad Hamilton)", "폴리와 함께(Along Came Polly)", "첫 키스만 50번째(50 First Dates)", "퀸카로 살아남는 법(Mean Girls)"[19],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The Prince & Me)"[20] "화이트 칙스(White Chicks)", "우리 사랑일까요?(A lot like love)" 등의 15편의 영화가 국내 박스오피스에 링크되었다.[21] 이들 영화는 십대들의 발랄함과 유쾌함이 묻어있어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또 미국의 문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었다<표 1>. 이러한 영화들은 대부분 10대와 20대들의 가벼운 로맨스와 함께 여 주인공들의 성격이 대부분 외모 가꾸기에 매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

<표 1> 유행을 선도하는 미국의 대중매체-드라마, 영화



<그림 5>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Sex & The City)"

<그림 6> 미국 드라마 "프렌즈(Friends)"

<그림 7>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Mean Girls)"

<그림 8> 영화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The Prince & Me)"

의 캐주얼한 옷차림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림은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현실성이 높아 국내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진다.

드라마와 영화는 미국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며, 먹고, 입는 것이 미국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미국문화를 동경 하던 국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사랑에 순종적이고, 성적 자신감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직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면서 미국 여성의 당당함과 자유스러움을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은 곧 이들 주인공들의 패션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이 동경하는 미국 문화에 속해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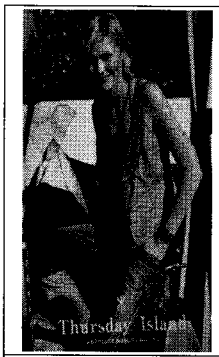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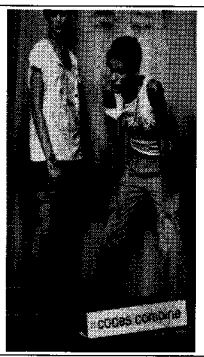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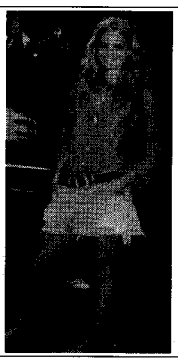
또한 영화나 드라마는 패션 아이콘을 탄생시켰다. 스파이더 맨에 출연하였던 '키얼스틴 던스트'[22], 가수와 영화배우로 활동 중인 '제니퍼 로페즈', 뉴욕 미니트의 '올슨 자매',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라 제시카 파커', 힐튼 호텔의 상속녀인 '페리스와 니키 힐튼', 가수 '힐러리 더프'와 '애슐리 심슨', '미샤 버튼', '시에나 밀러' 등이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이다. 이들이 뮤직 비디오나 드라마, 스크린 속에서 착용한 제품이 유행이 되고 있거나, 파파라치들이 촬영한 일상생활의 사진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를 통해 알려지고,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들이 평상시 착용하는 스타일 또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이 대중에게 친숙해지는 데는 패션잡지의 역할도 컸다. 최근 국내에서 10대와 20대 여성들을 위한 패션잡지 발행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Vogue〉, 〈Vogue Girl〉, 〈W〉, 〈Elle〉, 〈ELLE Girl〉, 〈Cosmo Girl〉, 〈Seventeen〉 등 미국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패션잡지가 한국판으로 발매되었다. 이 잡지들에서는 국내에 인기 있는 헐리웃 패션 아이콘이나 유명 모델들은 칵테일[23]과 코즈 콤바인[24] 광고에서처럼 국내 의류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매달 지면의 일정부분을 할애하여 〈그림 12〉[25], 〈그림 13〉[26]처럼 헐리웃 스타와 패션모델의 소식과 그들의 평소패션을 소개하고 있다〈표 2〉. 이를 통해 이들이 입은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이 국내 젊은 여성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그들과 동일시하려는 노력에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잡지 외에도 미국 헐리우드 패션 아이콘들의 일상과 몸매별 옷차림을 분석한 패션 전문 서적 등도 등장하고 있다[27].

3.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

신세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 도구인 인터넷 카페나 클럽, 블로그를 이용해서도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은 더욱 쉽고 다양하게

〈표 3〉 잡지에 나타난 패션 아이콘들의 모습

				
〈그림 9〉 키얼스틴 던스트	〈그림 10〉 칵테일 의류광고	〈그림 11〉 코즈 콤바인 해외 모델 의류광고	〈그림 12〉 패션모델의 평소 모습	〈그림 13〉 시에나 밀러 스타의 평소 모습

접할 수 있다. 싸이월드(www.cyworld.com)의 경우 관련 클럽이 90여개이고, 다음(http://cafe.daum.net)에서도 100개의 관련카페가 있으며, 특히 케이블 TV를 통해 소개된 친숙한 헐리웃 스타들의 모습은 2005년 이후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탈의 블로그나 카페에 파파라치들이 찍은 사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저가 복제품이 온라인 마켓 등에 양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28] 이렇게 할리우드 배우들의 평상시 모습은 TV나 스크린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하고 실용적지만 세련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들의 스타일을 쉽게 받아들여 착용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캐주얼 스타일은 국내의 이지캐주얼이나 유니섹스와는 매우 색다른 이미지를 전달한다. 즉, 편안하지만 섹시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어서 국내 젊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다.

4. 쇼핑경험

미국 캐주얼 스타일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에서도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미국 캐주얼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스타가 착용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은 상품이 많아 구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현재 위즈위드(www.wizwid.com), 유에스 숍(www.usshop.co.kr), 아이이하우스(www.iehouse.co.kr), 엔조이뉴욕(www.njoyny.com) 등 약 20여개가 해외브랜드 구매대행 쇼핑몰들이 성업 중이며 이들 쇼핑몰들의 매출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29] 이들 구매대행서비스를 하는 쇼핑몰에서는 헐리웃 스타들이 착용한 스타일 등 제품이 다양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편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외국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국내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가격도 고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의 트렌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실용성과 함께 개성표현이 가능하고, 제품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 구매를 자극하고 있다.

V.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 모방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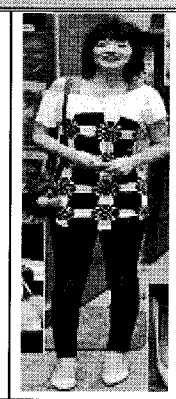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국내 확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미국 헐리웃 스타들을 중심으로 한 연예인들이다. 이들이 착용한 평상복이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므로 드라마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이들의 평상복 차림을 분석한 결과 의류에서는 스키니 진, 데님과 부츠 착용, 레깅스, 쇼츠, 미니 드레스의 5가지 스타일과 액세서리에서는 빅 백과 긴 목걸이의 2가지 스타일로 나누어졌다. 이들 스타일들을 국내 젊은 여성들이 모방한 사례들을 스트리트 패션조사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키니 진

모델 케이트 모스 등이 착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스키니 진은 허리에서부터 바지의 끝단까지 꼭 맞아서 다리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헐리웃 스타들이 착용한 스키니 진은 풍성한 니트, 섹시한 탑, 점퍼, 재킷 등 다양한 상의와 모두 잘 어울리며, 상의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또한 진에 신축성을 가미하여 섹시함과 활동성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헐리웃 스타들의 일상이 드러나는 파파라치 사진에서도 스키니 진을 착용한 스타들의 모습이 대거 등장하였다〈그림 14〉[30], 〈그림 15〉[31], 〈그림 16〉[32]. 스키니 진의 색상은 데님의 블루, 검은색 등 대체로 어두운 색상이 많아 날씬한 다리의 선을 강조하였지만, 밝은 회색 등 밝은 색상들도 착용하였다. 신발은 하이힐도 신지만 굽이 없는 펌프스를 신은 경우도 많아 섹시함과 함께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스키니 진을 착용한 모습은 국내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두운 색상의 스키니 진에 상의로는 주로 〈그림 17〉[33], 〈그림 18〉[34]처럼 길이가 길고,

〈표 4〉 스키니 진 스타일 비교-헐리웃 스타와 국내 스트리트 패션

지역 / 특성	미국			한국		
스타일 예						
착용자, 장소	〈그림 14〉 힐러리 더프 (2005. 10)	〈그림 15〉 에슐리 심슨 (2006. 06)	〈그림 16〉 니키 힐튼 (2006. 05)	〈그림 17〉 이대 앞 (2007.09)	〈그림 18〉 동대문 (2007.07)	〈그림 19〉 이대 앞 (2007.05)
스타일 특징	다양한 상의			주로 어두운 색상의 스키니 진		

〈표 5〉 진과 부츠 스타일 비교-헐리웃 스타와 국내 스트리트 패션

지역 / 특성	미국			한국		
스타일 예						
착용자, 장소	〈그림 20〉 케이트모스 (2006. 11)	〈그림 21〉 린제이 로한 (2006. 10)	〈그림 22〉 레이첼 빌슨 (2007. 05)	〈그림 23〉 동대문 (2007.05)	〈그림 24〉 홍대거리 (2006.12)	〈그림 25〉 홍대거리 (2006.10)
스타일 특징	다양한 색상의 부츠			검은색과 갈색계열의 부츠		

풍성하거나 꼭 맞는 티셔츠, 점퍼 등을 입은 사례가 많아 스키니 진의 스타일이 더욱 캐주얼하였으나,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신발은 주로 굽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상의 형태가 여름에는 티셔츠, 겨울에는 재킷이나 가디건〈그림 19〉[35], 점퍼 등 계절에 따라 코디네이션 스타일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다〈표 3〉.

〈표 6〉 레깅스 스타일 비교-헐리웃 스타와 국내 스트리트 패션

지역 / 특성	미국			한국		
스타일 예						
착용자, 장소	〈그림 26〉 메리케이트올슨 (2006. 10)	〈그림 27〉 에슐리 올슨 (2006. 11)	〈그림 28〉 레이첼 빌슨 (2007. 05)	〈그림 29〉 신촌 (2007.06)	〈그림 30〉 이대 앞 (2007.05)	〈그림 31〉 이대 앞 (2007.05)
스타일 특징	독립된 하의인 레깅스			레이어드용 소품인 레깅스		

2. 진과 부츠 스타일

헐리웃 스타들은 진을 착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몸에 꼭 맞는 스키니 진에 무릎까지 오거나 미디 길이의 부츠를 착용하였다. 부츠는 검은색, 회색, 베이지, 흰색 등 다양한 색상들이었으며, 상의와 부츠의 소재나 색상에 따라 세련되거나 활동적이고, 거칠어 보이기도 한다. 부츠를 착용한 모습은 가을과 겨울에 많았지만, 봄에도 이러한 스타일이 다수 등장하여 계절의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함께 입는 상의는 몸에 잘 맞는 짧은 길이의 재킷이 많고 스웨터와 가벼운 점퍼, 모자, 선 그라스 등 다양한 패션 소품과 코디네이션 하여 소품별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한다〈그림 20〉[36], 〈그림 21〉[37], 〈그림 2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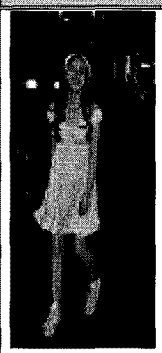
국내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이와 같은 착용 방법이 보이는데, 부츠의 색상에서 검은색이나 갈색계열이 주로 이용되었다. 상의는 스키니 진과 마찬가지로 주로 점퍼나 티셔츠와 베스트 등 미국보다 더 캐주얼한 스타일로 한정적이었다〈그림 23〉[39], 〈그림 24〉[40], 〈그림 25〉[41]. 부츠는 원래 방한용 신발로 과거에는 겨울에 주로 착용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가을과 봄은 물론 여름에도 이러한 차림을 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어 계절적 요인보다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3. 레깅스 스타일

헐리웃 스타들의 파파라치 사진에서 엉덩이에서부터 발목까지 하체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 활동성과 섹시함을 강조할 수 있는 레깅스가 몇 년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소재는 진, 신축성이 강한 소재, 가죽 등 다양하며, 색상에서도 검은색을 비롯한 어두운 색이 주를 이루지만, 밝고 화려한 색상도 간혹 보인다. 상의는 티셔츠, 가죽 재킷, 니트, 블라우스, 탑 등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며 하의로 레깅스만 착용하여 각선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그림 26〉[42], 〈그림 27〉[43], 〈그림 28〉[44].

반면 국내에서는 레깅스의 길이가 계절에 따라 무릎 밑, 발목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여름에는 흰색이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검은색, 회색, 자주색 등을 입었다. 주로 미니스커트나 미니 원피스, 긴 상의 등과 함께 착용하여 섹시함 보다는 발랄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레깅스를 덧입어 활동성을 부여한 스타

〈표 7〉 미니 드레스 스타일 비교-헐리웃 스타와 국내 스트리트 패션

지역 / 특성	미국			한국		
스타일 예						
착용자, 장소	〈그림 32〉 에바 롱고리아 (2006. 08)	〈그림 33〉 제시카 심슨 (2007. 11)	〈그림 34〉 케이트보스워스 (2006.09)	〈그림 35〉 홍대거리 (2007.08)	〈그림 36〉 홍대거리 (2007.07)	〈그림 37〉 신촌 (2007.06)
스타일 특징	복고풍의 미니 드레스			로맨틱한 미니드레스		

일이 많았다〈그림 29〉[45], 〈그림 30〉[46], 〈그림 31〉[47].

헐리웃 스타들은 레깅스를 독립적인 하의로 착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레깅스를 짧은 원피스나 스커트 등에 스타킹 대신 착용하는 레이어드용 소품으로 착용하는 경향이 많았다〈표 5〉.

4. 미니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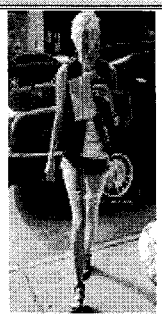
헐리웃 스타들은 복고풍의 영향으로 미니 드레스를 착용한 모습이 많았으며, F/W 시즌 보다는 S/S 시즌에 더 많았다. 실루엣은 H 실루엣이거나 하이웨이스트가 많았으며, 소재는 면에서부터 실크까지 캐주얼하거나 로맨틱한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였다. 과거에는 드레스를 캐주얼웨어로 착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미니드레스의 경우는 디자인이 매우 단순하고 소재가 신축성 있는 저지(jergy)류가 많으며, 길이가 짧아 활동에 지장이 없고 노출이 많아 섹시한 매력까지 더하여 연예인들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봄, 여름에 가장 많이 착용하나 가을, 겨울에도 안에 니트류를 입고, 겉에 재킷이나 코트를 입는 사례들이 보여 계절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2〉[48], 〈그림 33〉[49], 〈그림 34〉[50].

우리나라의 스트리트에서 발견되는 미니드레스는 주로 여름 즉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견되며 가을에는 소수, 겨울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스타일은 A라인의 심플한 실루엣을 가진 활동적인 스타일도 간혹 보이나, 소재에 관계없이 프릴이나 주름 등의 디테일이 있는 로맨틱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그림 35〉[51], 〈그림 36〉[52], 〈그림 37〉[53]. 미니 드레스와 함께 레깅스를 신은 모습들도 다수 발견되어 여성적인 멋과 활동성을 함께 표현하려 함을 알 수 있었다〈표 6〉.

5. 쇼츠

헐리웃 스타들은 주로 데님의 매우 짧은 바지를 착용하여 섹시한 각선미를 드러내고 있다. 상의는 배를 드러낼 정도의 짧은 탑과 함께 입기도 하지만 주로 엉덩이 근처로 내려올 정도의 길이가 다소 길게 착용하여 긴 상의, 짧은 하의의 비율을 맞추고 입었다. 계절에 따라 티셔츠, 베스트, 재킷, 스웨터 등 다양한 아이템들과 코디네이션 하였는데 가을과 겨울에도 쇼츠 안에 레깅스를 신은 차림을 볼 수 있어

〈표 8〉 쇼츠 스타일 비교-헐리웃 스타와 국내 스트리트 패션

지역 / 특성	미국			한국		
스타일 예						
착용자, 장소	〈그림 38〉 니키 힐튼 (2005. 05)	〈그림 39〉 릴리 콜 (2006. 10)	〈그림 40〉 케이트보스워스 (2006. 08)	〈그림 41〉 대학로 (2007.06)	〈그림 42〉 신촌 (2007.07)	〈그림 43〉 신촌 (2007.06)
스타일 특징	다양한 상의와 신발의 굽 높이			쇼츠와 하이힐		

쇼츠는 여름에 입는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계절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발은 스타일에 따라 부츠, 샌들, 하이 힐 등을 신어 다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그림 38〉[54], 〈그림 39〉[55], 〈그림 4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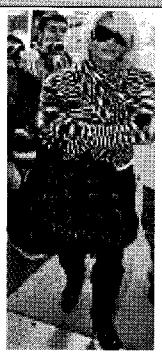
국내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쇼츠도 주로 데님을 비롯한 면 종류가 많았다. 상의를 길게 착용하고 캐주얼한 티셔츠, 탑을 겹쳐 입거나, 쉬폰 소재의 블라우스 형 상의를 착용하여 전체적으로 좀 더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전하는 스타일이 많았다〈그림 41〉[57], 〈그림 42〉[58], 〈그림 43〉[59]. 가을, 겨울에는 쇼츠 착용은 현저히 줄어들어 아직 쇼츠 스타일이 사계절 패션아이템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발은 주로 하이힐을 신어서 다리를 길어 보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표 7〉.

6. 액세서리

패션 소품으로 근래에 의상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가방이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매 시즌 새로운 가방을 출시하고 있는데, 스타일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크기가 매우 큰 빅 백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이 개성적이면서 활동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소지품을 넣을 공간이 많은 실용적인 빅 백이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을 주로 입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트렌디 캐주얼을 즐기는 헐리웃 스타들도 대부분 빅 백을 들어 활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정한 모양보다는 각자 선호하는 브랜드와 트렌드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빅 백은 주로 유명 브랜드 제품들로서 가죽 소재가 많았으며 〈그림 44〉[60], 〈그림 45〉[61], 〈그림 46〉[62] , 이들 가방들이 매체에 소개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활발해지는 사례들이 많았다. 국내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빅 백을 든 차림이 많았는데, 명품스타일의 가죽 빅 백과 함께 천이나 비닐 소재를 이용하기도 하였다〈그림 47〉[63], 〈그림 48〉[64], 〈그림 49〉[65], 〈표 8〉.

빅 백과 함께 많이 나타난 액세서리는 긴 목걸이다. 헐리웃 스타들의 차림을 보면 플라스틱, 금체인 등 하나 혹은 여러 개를 같이 착용하여 평범한 캐주얼 의상에 화려함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체인과 구슬을 함께 엮는 등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창조하여 사용하였다. 국내 패션에서는 긴 목걸이를 한 개 착용한 모습이 많았으며, 헐리웃 스타들처럼 화려하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착용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표 9〉 빅 백 스타일 비교-헐리웃 스타와 국내 스트리트 패션

지역 / 특성	미국			한국		
스타일 예						
착용자. 장소	〈그림 44〉 레이첼 빌슨 (2007. 06)	〈그림 45〉 린제이 로한 (2007. 07)	〈그림 46〉 제시카 심슨 (2006. 12)	〈그림 47〉 신촌 (2007.07)	〈그림 48〉 명동 (2007.09)	〈그림 49〉 명동 (2007.07)
스타일 특징	유명 브랜드 가죽 빅 백			명품 모방 형태의 가죽, 천 소재의 빅 백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개성과 신체적 매력을 표현하기 원하는 10대와 20대의 젊고 감각적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특징과 이들 스타일들이 국내에 소개되고 확산되어 가는 경로를 알아보고,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들의 대표적 착용 예인 헐리웃 스타들의 스타일들과 국내 스트리트 패션을 비교하여 국내 젊은 여성들이 미국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어떻게 모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먼저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특징은 상의와 하의 코디네이션을 기본으로 하며 클래식 캐주얼에 비해 길이가 짧고 몸에 잘 맞으며 때로 약간의 신체 노출도 포함한다.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섹시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전달하며 착용자의 개성과 신체적 매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캐주얼 스타일들이 패션 트렌드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데 비해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들은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의 패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젊은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들이 국내에 소개되고 확산되는 경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유학과 연수 등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현지 문화를 경험한 후 국내에 돌아와 자신들이 습득한 패션스타일을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인데 그 범위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둘째, 보다 대중적인 스타일 확산은 최근 국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의 일상을 그린 영화들과 TV드라마들의 국내 방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인다. 더욱이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했던 주인공들은 패션아이콘이 되는 경우가 많아 스크린에서 착용한 제품이 유행되거나 이들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평상복 차림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에 소개되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 패션 잡지들이 국내에 소개되어 구매가 가능해진 것도 스타일의 확산을 촉진시킨다. 이들 잡지에서는 주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 및 스타들의 소식과 패션을 소개하기 때문에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에 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셋째, 싸이월드나 다음, 네이버의 블로그나 카페 같은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스타들과 국내 스타들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정보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교류되고 있다. 넷째, 경로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제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으로 TV나 영화, 잡지를 통해 눈으로만 보던 스타일들을 실지로 구매하여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의 국내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을 대중들에게 유행시키는 가장 대표적 사례는 미디어의 노출이 많은 미국 연예인들로 판단되어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이들의 평상복 차림을 분석한 결과 2006년 F/W-2007년 S/S동안 의류에서는 스키니 진, 진과 부츠의 착용, 레깅스, 미니 드레스, 쇼츠 스타일로 주로 하의에 집중되었으며, 액세서리는 빅 백과 긴 목걸이의 착용이 공통적이었다. 같은 시기 국내 젊은 여성들의 스트리트 패션과 비교한 결과 실루엣과 전체적인 스타일은 미국 연예인들의 차림과 매우 유사하였으나 코디네이션에 사용하는 아이템 구성과 장식, 이미지, 색채, 신발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미국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보면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종류가 계절에 관계없이 재킷, 블라우스, 티셔츠, 니트 등 종류가 다양하고, 색채는 회색, 검정색, 흰색 등 무채색이 많았으며 빨강이나 노랑 등 원색을 강조 색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장식은 거의 절제되고, 무늬 사용도 줄무늬 정도로 제한적이며 전체적으로 심플하여 착용자의 신체적 매력이 오히려 강조되는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반면 국내의 경우 상의의 종류가 계절에 따라 S/S에는 주로 티셔츠와 블라우스, F/W에는 재킷과 니트 등 계절에 따른 차이가 컸다. 색채는 분홍, 파랑 등 유채색과 중간색조가 더 많으며,무늬와 장식이 많아 전체적으로 귀엽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물론 연예인들과 일반 대중들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특정 스타일을 모방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에서는 겨울에도 쇼츠를 입고, 여름에 부츠를 신는 등 코디네이션을 만들 때 계절에 따라 아이템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신체적 매력과 개성을 잘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전체적으로 국내에도 서서히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 10대와 20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확산되고, 특히 미국 연예인들의 패션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 국내 젊은 여성들의 패션 취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패션 트렌드를 수용하면서도 착용자의 개성과 신체적 매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유학과 연수의 필요성은 국내 청년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 TV 드라마와 영화의 국내 방영으로 인해 미국 문화에 대한 노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은 국내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캐주얼 브랜드에서는 미국 유명브랜드 아이템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메리칸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내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소비자들의 정확한 기호를 파악하여 그들의 다양한 개성과 욕구를 트렌디 캐주얼 스타일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하지수 (2002). 미국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주의. *한국의류학회지, 26*(9/10), p. 1461.
2) 이혜원 (2003). *American Classic Fashion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1.
3) 자료검색일 2006년 3월 20일, 자료출처 blog.naver.com/befashion
4) 자료검색일 2006년 3월 25일, 자료출처 http://bbs2.worldnmedia.daum.net
5) 김현순 (2001). 유니섹스 영 캐주얼웨어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1*(6), pp. 85-99.
6) 자료검색일 2006년 4월 5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befashion
7) 자료검색일 2006년 4월 5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inklove757
8) Sproles, G 저, 송용섭, 정혜영 역 (1988). *패션마아케팅*. 서울: 법문사, pp. 264-277.
9) 심성식 (1990). 패션정보탐색에 있어서 패션의견선도자와 추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복식, 17*, pp. 93-117.
김찬주 (1995). 남성 유행선도자의 정보탐색활동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논문집*, 20, pp. 2-22.

10)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pp. 339-353.
11) 고은주, 장남경 (200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 만족도와 의복행동연구를 통한 패션마케팅 전략 제안. *대한가정학회지, 41*(12), pp. 13-26.
12)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 이미지와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pp. 48-54.
13) 이가영 (1997). *신세대 의복행동에 나타난 TV의 영향에 관한 연구-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1-54.
14) Yu, H. & Kim, C. (2001). The effects of Sojourning Experience on Self-identity and Clothing Preference for Korean Women.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8*(4), p. 199.
15) 자료검색일 2006년 2월 21일, 자료출처 www.hbo.com/city
16) 자료검색일 2006년 2월 21일, 자료출처 www.warnerbros.com/friendstv
17) 자료검색일 2005년 3월 29일, 자료출처 헤럴드 프리미엄 http://dvdprime.intizen.com
18) '세련, 대담' 캐리 패션이 뜬다. 자료검색일 2002년 8월 1일, 자료출처 중앙일보.
19) 자료검색일 2006년 3월 4일, 자료출처 http://cizle.nate.com/movieinfo/movie
20) 자료검색일 2006년 3월 4일, 자료출처 http://www.cineseoul.com/movies/cinedata
21) 자료검색일 2005년 3월 29일, 자료출처 http://www.movist.com
22) 2005년 5월호 *Vogue Korea*
23) 2005년 6월호 *Vogue Korea*
24) 2006년 4월호 *W Korea*
25) 2006년 2월호 *W Korea*
26) R. Fraiman (2006). *Celebrity Style Guide*. Teen People Books Time Inc, New York, p. 108.
27) *Ibid.*, p. 108.
28) 이여영 (2008.12.26). '20대 유행의 교본, 헐리웃 파파라치 사진'. 자료검색일 2008년 12월 26일, 자료출처 http://blog.daum.net/yiyoyong
29)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성행. 자료검색일 2004년 12월4일, 자료출처 매일경제신문.
30) 자료검색일 2005년 10월 25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beshion
31) 자료검색일 2006년 6월 10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inklove757
32) 자료검색일 2006년 6월 10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aramount35
33) 자료검색일 2007년 9월 10일, 자료출처 www.sfc.seoul.kr
34) 자료검색일 2007년 7월 10일, 자료출처 www.inZZANG.com
35) 자료검색일 2007년 5월 25일, 자료출처www.sfc.seoul.kr
36) 자료검색일 2006년 11월 5일, 자료출처 www.rumiel.com
37) 자료검색일 2006년 10월 20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inklove757
38) 자료검색일 2007년 5월 11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aramount35
39) 자료검색일 2007년 5월 11일, 자료출처 www.LAVATA.net
40) 자료검색일 2006년 12월 20일, 자료출처 www.hiphoper.com
41) 자료검색일 2006년 10월 20일, 자료출처 www.STR22T.com
42) 자료검색일 2006년 10월 20일, 자료출처 www.patzzi.com
43) 자료검색일 2006년 11월 2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beshion
44) 자료검색일 2007년 5월 30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aramount35
45) 자료검색일 2007년 6월 2일, 자료출처 www.sfc.seoul.kr
46) 자료검색일 2007년 5월 30일, 자료출처 www.sfc.seoul.kr
47) 자료검색일 2007년 5월 30일, 자료출처 www.sfc.seoul.kr
48) 자료검색일 2006년 8월 20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antila
49) 자료검색일 2007년 11월 2일, 자료출처 www.celibrities.com
50) 자료검색일 2006년 9월 22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aramount35
51) 자료검색일 2007년 8월 2일, 자료출처 www.bagazimuri.com
52) 자료검색일 2007년 7월 28일, 자료출처 www.inZZANG.com
53) 자료검색일 2007년 7월 2일, 자료출처 www.sfc.seoul.kr
54) 자료검색일 2005년 5월 25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antila
55) 자료검색일 2006년 10월 20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beshion
56) 자료검색일 2006년 8월 20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beshion
57) 자료검색일 2007년 6월 28일, 자료출처 www.sfc.seoul.kr
58) 자료검색일 2007년 7월 2일, 자료출처 www.inZZANG.com
59) 자료검색일 2007년 6월 28일, 자료출처 www.sfc.seoul.kr
60) 자료검색일 2007년 6월 28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inklove757
61) 자료검색일 2007년 7월 2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aramount35
62) 자료검색일 2006년 12월 18일,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aramount35
63) 자료검색일 2007년 7월 2일, 자료출처 www.inZZANG.com
64) 자료검색일 2007년 9월 22일, 자료출처 www.sfc.seoul.kr
65) 자료검색일 2007년 7월 2일, 자료출처 www.sfc.seoul.kr